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문화

‘K-culture’



정보통신망과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전 세계의 문화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 문화적 확산과 전파의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지금, 세계는 한국의 문화에 집중하고 있다. 세계인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자랑스러운 ‘K-culture’를 만나보자.



K-POP

한국 문화 열풍의 선봉장은 K-POP이다.

20년 넘게 아시아를 호령한 한류 열풍을 넘어, 이제는 전 세계를 무대로 파급력을 높이고 있다. 신곡 발매가 빌보드 차트 1위로 이어지는 BTS를 비롯해 전 세계 팬덤을 사로잡는 블랙핑크 등 한국의 대중음악은 이제 세계가 함께 즐기고 있다.

세계 3대 영화제로 손꼽히는 칸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아시아 배우 최초로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한국의 영화는 작품성으로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다.



우리의 음식도 빠르게 세계인의 식탁 위로 올라간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치맥 열풍을 이끌었고, 영화 ‘기생충’에  
나온 짜파구리가 세계인의 입맛을 다시게 했다. 삼겹살과 쌈 문화,  
막걸리, 떡볶이 등 김치와 비빔밥을 넘어 한국의 다양한 먹거리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세계 최정상급의 축구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손흥민, 메이저리그 사이영상 후보에 오른 류현진, 세계 여자배구계의 전설로 불리는 김연경, e스포츠의 슈퍼스타 '페이커' 이상혁 등 최고의 기량으로 세계에서 활약하는 운동선수들 역시 스포츠 한류를 이끌고 있다.



다소 의외의 한류 열풍도 있다. 아기를 업기에 편하면서도 유대감과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포대기’는 뉴욕커 엄마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조선시대의 좀비를 주제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이 인기를 끌며 ‘갓’을 비롯한 우리의 전통 모자들도 주목받았다. 농기구인 호미도 혁신적인 원예용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외에도 드라마, 웹툰, 게임, 심지어는 손가락 하트까지  
정말 다양한 한국의 문화가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세계의 문화가 되는 K-culture의 시대!  
우리 모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